LG화학, 저발연성 카펫타일 출시

6월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 대비 … 고급 상업용 건물에서 수요 기대

LG화학이 소방법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대비한 저발연성 최고급 카펫타일 <LG카펫타일 노블>을 출시했다.

LG화학은 3월30일 방염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방법 제11조 발연성 세부시행규칙 개정에 대비한 ISO5659 테스트에서 발연밀도 400DS(Density)를 기록한 저발연성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.

<LG카펫타일 노블>은 기존 PVC 타일에 비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보행감이 탁월하며 특히 방음효과가 3배 이상 우수해 백화점과 호텔 등 고급 상업용 건물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.

LG화학 장식재사업부 이인대 상무는 "2004년 6월까지 LG화학에서 생산하는 모든 카펫타일에 저발연 성능을 적용할 계획이며 백화점, 호텔 등 최고급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"고 밝혔다.

카펫타일의 국내시장 규모는 한해 350억원 가량으로 LG화학이 시장의 40%를 점유하고 한화, 효성 등이 뒤따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3/31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